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 인식,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두리, 양채연, 채희원, 장지은, 윤지수, 조은희*
군산간호대학교

Effects of Good Death Perception an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n the Attitude towards Advance Directives of Nursing Students

Doo Ri Kim, Chae Yeon Yang, Hee Won Chae, Ji Eun Jang, Ji Su Yoon, Eunhee Jo*
Kunsan College of Nursing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 인식, 생명의료 윤리의식,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전북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에 동의한 128명에게 2022년 6월 1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명의료 윤리의식($\beta=.36, p<.001$), 좋은 죽음 인식($\beta=.18, p=.032$)순서이며, 사전의료의향서 태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8.0%로 나타났다. 좋은 죽음 인식은 생명의료 윤리의식,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이고 생명의료 윤리의식은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은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 좋은 죽음 인식과 생명의료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부터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통한 교육과 호스피스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good death percepti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s among nursing students,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s. The target population was composed of college students attending the nursing departments of three universities in Jeollabuk-do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 2022, to July 31, 2022, from 128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fter receiving an explanation of the study's purposes and method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in SPSS/WIN 20.0. Factors found to influence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s in order were biomedical ethics awareness ($\beta=.36, p<.001$) and good death perception ($\beta=.18, p=.032$),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attitude towards advance directives was 18.0%. Good death percep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 advance directives, an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ttitude towards advance directives. The study shows that good death perception and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influence the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 advance directives. Thus, a curriculum is required based on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courses and hospice-related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good death perception and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mong nursing students.

Keywords : Nursing Student, Attitude, Advance Directives, Good Death Perception, Conscious Biomedical Ethics

본 논문은 2022년도 군산간호대학교 혁신지원사업(학부생 참여형 연구활성화)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Jo(Kunsan College of Nursing)

email: almaz0920@kcn.ac.kr

Received January 13, 2023

Revised February 8, 2023

Accepted March 3, 2023

Published March 31,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신 의료기술 및 약물의 발전으로 생명유지 장치나 약물로 연명치료를 받으며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1].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회생 가능성이 낮은 말기질환 환자들의 주체적인 삶을 살 권리를 빼앗고[2,3],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시킬 수 있으며[4], 남은 가족들에게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겪은 심리적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5].

최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간 존엄성이 유지되고, 신체적, 심리적, 영적 편안함과 더불어 나의 죽음을 준비할 시간과 죽음의 선택권을 갖길 원하며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6]. 좋은 죽음 인식은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갖추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가치나 신념이 존중되고, 의료나 임종 방법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며, 신체적 고통 없이 죽는 것을 포함한다[7].

사전의료의향서란 의료진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인 환자의 죽음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여 의학적 치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8],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연명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9]. 실제 의료진은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간호중재에 어려움과 함께 다양한 윤리적 가치관이 공존하여 도덕적 고뇌를 경험한다고 하였다[10]. 이때 생명의료 윤리의식은 의료행위와 연결되는 윤리적 문제해결 과정의 기초가 되며,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11].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의료 윤리적 갈등상황을 경험한다. 특히 환자의 직접간호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치료계획 및 간호를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중심역할을 담당함으로써[12], 의사결정 과정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13]. 간호대학생은 예비 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 인식과 생명의료 윤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4]. 즉, 간호대학생이 좋은 죽음 인식과 생명의료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냐는 졸업 후 수행해야 할 전문적 간호행위와 직결되며[15,16], 생명의료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임상에서 윤리적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17].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생명의료 윤리의식 및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와 명확한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에서 유의한 관계를 확인한 연구[18]와 간호사 대상의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한 연구[19]가 진행되었다. 이와같이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8-21].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좋은죽음인식, 생명의료윤리의식, 사전의료의향서 태도 등을 포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 중요한 시점에서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 좋은죽음인식, 사전의료의향서 태도 등과 관련된 연구는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좋은 죽음 인식, 생명의료 윤리의식 및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말기 환자 간호에 있어 사전의료의향서에 올바른 태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 인식, 생명의료 윤리의식,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2. 본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대한 좋은 죽음 인식, 생명의료 윤리의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북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4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2022년 6월 1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표본수 선정은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Linear multiple regression: Fixed model, R2 deviation from zero)에 필요한 적정 수의 표본 크기를 산출하였다. 선행연구를 근거[21]로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정력 .80, 예측 변수 12개 기준(일반적 특성 10개, 독립변수 2개)으로 필요한 표본수는 127명이었으며, 10%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143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지만, 미비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이용한 대상자는 128명이었다.

2.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6월 1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전북지역에 소재한 3개 대학 간호학과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제공하여 직접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조사는 15분 이내로 소요되었으며, 설문지 응답자에게 오천원 정도의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좋은 죽음 인식

본 연구는 Schwartz 등[22]이 개발한 The concept of Good Measure를 Jeong[23]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친밀감 9문항, 임상증상 5문항, 통제감 3문항으로 3개의 하위영역과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 4점의 Likert 척도로 최저점수 17점부터 최고점수 68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Schwartz 등[22]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7, Jeong[23]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2,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71이었다.

2.4.2 생명의료 윤리의식

본 연구는 Lee[24]이 고안한 윤리적 가치관 척도를 Kwon[25]가 수정하고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태아의 생명권 5문항, 인공임신중절 6문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생아의 생명권 5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문항, 인간생명공학 7문항으로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반대' 1

점부터 '찬성' 4점의 Likert 척도로 최저점수 49점부터 최고점수 196점이고 부정 문항은 역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높았다. Kwon[25]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6,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78이었다.

2.4.3 사전의료의향서 태도

본 연구는 Nolan과 Bruder[26]가 개발하고 수정, 보완한 Advance Directive Attitude Scale(ADAS)를 Lee와 Park[2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치료선택의 기회 4문항, 사전의사결정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8문항, 사전의사결정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 3문항, 질병의 인식 1문항으로 4개의 하위영역과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로 최저점수 16점부터 최고점수 64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전의료의향서 태도가 높았다. Nolan과 Bruder[26]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4,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70이었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및 절차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명시하였고, 설문지 작성 시간은 15분 이내로 소요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연구과정에 있어 정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회수된 설문지는 익명이 보장되며 연구참여 철회에 있어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만 참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을 설명하였다.

2.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좋은 죽음 인식, 생명의료 윤리의식, 사전의료의향서 태도 정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좋은 죽음 인식, 생명의료 윤리의식, 사전의료의향서 태도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 분석은 Duncan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좋은 죽음 인식,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사전의료의향서 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좋은 죽음 인식,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성이 112명(87.5%), 남성이 16명(12.5%)으로 여성이 더 많고, 평균 연령은 20.7±2.6세이다. 종교는 있음이 70명(54.7%), 없음이 58명(45.3%)으로 종교가 있음이 더 많고, 학년은 1학년 48명(38.5%), 3학년 31명(24.2%), 2학년 27명(21.1%), 4학년 22명(17.2%) 순이다. 임상실습 경험 여부는 있음이 33명(25.8%),

없음이 95명(74.2%)으로 없음이 더 많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55.5%)이다.

부모님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는 122명(95.3%), 한 분만 생존해 있는 경우는 6명(4.72%)으로 부모님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임종 경험 여부는 없음이 79명(61.7%), 있음이 49명(38.3%)으로 없음이 더 많고, 좋은 죽음 교육 여부는 받지 않음 78명(60.9%), 받음이 50명(39.1%)으로 받지 않음이 더 많다.

생명의료 윤리교육 여부는 받음이 79명(61.7%), 받지 않음이 49명(38.3%)으로 받음이 더 많고, 사전의료의향서 교육 여부는 받지 않음이 78명(60.9%), 받음이 50명(39.1%)으로 받지 않음이 더 많았으며, 유언장 작성 의향 여부는 없음이 88명(66.9%), 있음이 40명(31.1%)으로 없음이 더 많다(Table 1).

Table 1. Differences among the Good death percepti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ttitudes toward advanced directives (N=12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ood death percepti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ttitudes toward AD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16(12.5)	3.10±0.39	0.97 (.192)	2.94±0.27	1.12 (.311)	2.85±0.32	0.91 (.008)
	Female	112(87.5)	3.02±0.31		2.87±0.23		2.85±0.32	
Age			20.7±2.6					
Religion	Yes	70(54.7)	3.06±0.33	1.46 (.916)	2.85±0.26	1.11 (.428)	2.81±0.30	0.80 (.910)
	No	58(45.3)	2.98±0.31		2.90±0.21		2.77±0.30	
Grade	1th	48(38.5)	3.00±0.31	0.46 (.714)	2.91±0.17	0.95 (.420)	2.77±0.24	2.23 (.088)
	2th	27(21.1)	3.09±0.38		2.83±0.37		2.73±0.36	
	3th	31(24.2)	3.02±0.32		2.89±0.22		2.91±0.28	
	4th	22(17.2)	3.00±0.28		2.84±0.16		2.75±0.34	
Health status	High	71(55.5)	3.02±0.32	0.10 (.908)	2.90±0.19	1.66 (.195)	2.81±0.24	1.27 (.285)
	Middle	48(37.5)	3.02±0.34		2.83±0.31		2.78±0.36	
	Low	9(7.0)	3.07±0.28		2.95±0.16		2.64±0.37	
Living parents arrangement	Living both	122(95.3)	3.03±0.32	0.97 (.895)	2.88±0.24	0.59 (.800)	2.79±0.31	0.20 (.158)
	Living alone	6(4.7)	2.90±0.33		2.82±0.20		2.77±0.12	
Experienced the death of family or relatives	Yes	49(38.3)	2.98±0.29	-1.36 (.411)	2.90±0.15	1.04 (.009)	2.85±0.25	1.90 (.160)
	No	79(61.7)	3.06±0.34		2.86±0.28		2.75±0.32	
Experience of good death education	Yes	50(39.1)	3.04±0.30	0.45 (.165)	2.90±0.19	0.85 (.317)	2.83±0.30	1.27 (.584)
	No	78(60.9)	3.02±0.34		2.86±0.27		2.76±0.30	
Biomedical ethics education	Yes	79(61.7)	3.07±0.30	1.84 (.298)	2.88±0.21	0.19 (.903)	2.84±0.30	2.59 (.605)
	No	49(38.3)	2.96±0.34		2.87±0.28		2.70±0.28	
AD education	Yes	50(39.1)	3.06±0.32	0.95 (.964)	2.89±0.20	0.45 (.544)	2.90±0.30	3.14 (.358)
	No	78(60.9)	3.00±0.32		2.87±0.26		2.72±0.28	

M=mean; AD= Advanced Directives

3.2 대상자의 좋은 죽음 인식,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 정도

대상자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평균 3.03 ± 0.32 점이고 생명의료 윤리의식에 대한 정도는 평균 2.88 ± 0.24 점이었으며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대한 정도는 평균 2.79 ± 0.30 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Good death percepti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ttitudes toward advanced directives (N=128)

Variables	M±SD	Min	Max	Range
Good death perception	3.03±0.32	2.29	4.00	1-4
Biomedical ethics awareness	2.88±0.24	1.39	3.41	1-4
Attitudes toward AD	2.79±0.30	1.60	3.60	1-4

M=mean; AD= Advanced Directives

3.3 대상자의 좋은 죽음 인식,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좋은 죽음 인식, 생명의료 윤리의식, 사전의료의향서 태도 간의 상관관계에서 좋은 죽음 인식은 생명의료 윤리의식($r=.28, p=.002$), 사전의료의향서 태도($r=.29, p=.001$)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생명의료 윤리의식은 사전의료의향서 태도($r=.40,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좋은 죽음 인식과 사전의료의향서 태도($r=.29, p=.001$)는 정적 상관관계로 좋은 죽음 인식이 높을수록 사전의료의향서 태도가 높았다.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사전의료의향서 태도($r=.40, p<.001$)는 정적 상관관계로 사전의료의향서 태도가 높을수록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높았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Good death percepti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ttitudes toward advanced directives (N=128)

Variables	Good death percepti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ttitudes toward AD
	r (p)	r (p)	r (p)
Good death perception	1		
Biomedical ethics awareness	.28 (.002)	1	
Attitudes toward AD	.29 (.001)	.40 (<.001)	1

AD= Advanced Directives

3.4 대상자의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차이를 나타낸 성별(참조 항목은 남성)은 더미변수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기본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정하고 공차한계와 분산팽창 요인 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분산팽창인자(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은 1.014-1.088으로 10 미만이고 공차 한계는 .919-.956으로 0.1 이상이었다. 따라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Durbin-Watson 값은 1.605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좋은 죽음 인식($\beta=.18, p=.032$), 생명의료 윤리의식($\beta=.36, p<.001$) 순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이 사전의료의향서 태도($F=10.03, p<.001$)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8.0%이었다. 또한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명의료 윤리의식($\beta=0.34, p<.001$), 좋은 죽음 인식($\beta=0.20, p=.02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the Attitudes toward advanced directives (N=12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03	0.35		2.98	.004
Gender	-0.03	0.73	-0.03	-0.37	.710
Good death perception	0.18	0.08	0.20	2.33	.022
Biomedical ethics awareness	0.43	0.11	0.34	4.06	<.001

R²=.195 Adjusted R²= .176 F(p)=10.03 (<.001)

SE=Standard Error; Dummy=Gender(male)

AD=Advanced Directives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 인식, 생명의료 윤리의식 및 사전의료의향서 태도 정도를 파악하고,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사전의료의향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

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평균 4점 만점에 3.03 ± 0.32 점이고 생명의료 윤리의식에 대한 정도는 평균 4점 만점에 2.88 ± 0.24 점이었으며,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대한 정도는 평균 4점 만점에 2.79 ± 0.30 점이었다.

본 연구결과 좋은 죽음 인식 정도는 평균 4점 만점에 3.03 ± 0.32 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Cho와 Shu[28]의 연구결과 평균 3.15 ± 0.36 점, Choi와 Jeong[21]의 연구결과 평균 3.24 ± 0.38 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ho와 Shu[28]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4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2학년생을 포함하여 실시하였고 2학년 교육과정에 생명의료 윤리와 관련된 과목을 학습하기 때문에 2학년의 좋은 죽음 인식이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임종 경험 여부가 있음이 38.3%(49명)이고 Choi와 Jeong[21]의 연구에서는 임종 경험 여부가 있음이 78.4%(160명)으로 임종 경험을 통하여 좋은 죽음 인식 정도가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생명의료 윤리의식에 대한 정도는 평균 4점 만점에 2.88 ± 0.24 점이며 Kwon[25]의 연구에서 2.97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1~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윤리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대상자를 포함하였고, Kwon[25]의 연구는 4학년 대상으로 임상실습 경험뿐 아니라 생명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생명윤리 교과목을 통하여 생명의료 윤리의식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상태에서 임상실습 경험을 통하여 생명의료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사전의료의향서 태도 정도는 평균 4점 만점에 2.79 ± 0.30 점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도구를 사용한 Kwon[29]의 연구결과 2.74 ± 0.32 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Kwon[29]의 연구도 본 연구 대상자와 같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4학년 대상으로 하였고, 건강 상태와 생명윤리 또는 호스피스 교육도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사전의료의향서 태도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시기에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호스피스 관련 교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과, 호스피스 관련 세미나 참석 등 비교과 과정 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인 생명의료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명의료 윤리의식에

서 가족이나 친지의 임종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이 38.3%(49명)으로 임종을 경험한 적이 없는 학생보다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더 높았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ng과 Lee[12]의 연구에서 가족이나 친지의 임종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이 78.4%(160명), Park등[20]의 연구에서는 81.2%(125명)로 가족이나 친지의 임종 경험의 유무와 생명의료 윤리의식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가족이나 친지의 임종 경험 여부가 생명의료 윤리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전의료의향서 태도는 성별에서 남성이 2.94 ± 0.27 점으로, 여성은 2.87 ± 0.23 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사전의료의향서 태도가 더 높았다. Jeong과 Jung[30]의 연구에서도 남성은 2.80 ± 0.27 점으로, 여성은 2.71 ± 0.23 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맞춤형 사전의료의향서 관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성별에 따른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좋은 죽음 인식, 생명의료 윤리의식, 사전의료의향서 태도 간의 상관관계에서 좋은 죽음 인식은 생명의료 윤리의식,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좋은 죽음 인식과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난 Park[2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좋은 죽음 인식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난 Kwon[29], Kim과 Kim[3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사전의료의향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명칭은 다르나 같은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전의료의향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죽음 인식과 생명의료 윤리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시기에 생명윤리와 호스피스 관련 교육뿐 아니라 실제 간호대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호스피스 전문 병원 견학과 인턴십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순으로는 생명의료 윤리의식($\beta=0.34, p<0.001$), 좋은 죽음 인식($\beta=0.20, p=0.022$) 순으로 나타났다. Kim[32]의 연구에서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었으며, Lee등[33]의 연구에서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임상 현장에서 간호 대상자에게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시기에서부터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사전의료의향서의 영향요인인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을 갖도록 간호학과(부) 과정에서 간호윤리 또는 생명의료 윤리교육을 위한 교수자의 교수법이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실제 임상 현장에서 호스피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특강과 호스피스 전문 병원에서의 직접경험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명의료 윤리의식과 좋은 죽음 인식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사전의료의향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호스피스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 인식,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좋은 죽음 인식과 생명의료 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좋은 죽음 인식과 생명의료 윤리의식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생명의료 윤리의식이 간호대학생의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들의 좋은 죽음 인식, 생명의료 윤리의식,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를 확립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학문적 지식과 더불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학부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연구 측면에서 간호대학생의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좋은 죽음 인식과 생명의료 윤리의식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사전의료의향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과 함께 생명의료 윤리

의식과 관련한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따라서 간호실무 측면에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 좋은 죽음 인식과 생명의료 윤리의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호스피스 병동에서 직접적으로 좋은 죽음 인식과 생명의료 윤리의식에 대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폭넓은 임상실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간호교육 측면에서 간호대학생이 좋은 죽음 인식과 생명의료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북지역 소재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북 이외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와 더 나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확대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D. S. Sun, Y. J. Chun, J. H. Lee, S. H. Gil, B. Y. Shim, O. K. Lee, I. S. Jung, H. K. Kim, "Recognition of advance directives by advanced cancer patients and medical doctors in hospice care ward.",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12, No.1, pp.20-26, 2009.
DOI: <https://doi.org/10.14475/kihpc.2009.12.1.20>
- [2] H. J. Lee, J. H. Ha, J. M. Yun,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to advance medical directives and ethics valu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5, No.4, pp.282-291, 2019.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9.25.4.282>
- [3] M. A. Jezewski, J. K. Brown, Y. W. Bill, M. A. Meeker, J. Y. Feng, X. Bu, "Oncology nurses' knowledge, attitudes, and experiences regarding advance directives.", *In Oncology nursing forum*, Vol.32, No.2, March, 2005.
DOI: <http://dx.doi.org/10.1188/05.ONF.319-327>
- [4] C. G. Cameron, A. Houldin, "Concept analysis of good death in terminally ill patients.", *Americ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 Vol.29, No.8, pp.632-639, 2012.
DOI: <https://doi.org/10.1177/1049909111434976>
- [5] S. J. Moon, "Potential conflicts between death with dignity and patients' self-determination right.", *Lawyers Association Journal*, Vol.58, No.6, pp.5-44, 2009.
DOI: <https://doi.org/10.17007/klaj.2009.58.6.001>
- [6] D. L. Min, E. H. Cho, "Concept analysis of good death in the Korean communit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19, No.1, pp.28-38, 2017.
DOI: <https://doi.org/10.17079/jkgn.2017.19.1.28>
- [7] K. J. Lee, K. H. Hwang, J. S. Park, J. R. Ra, J. A. Hong, "Analysis of the concept of a good death.", *Journal of Hospice Education Institute*, Vol.10, No.1, pp.23-39, 2006.
- [8] E. H. Park, N. Y. Kim, "The influence of nursing

- professionalism,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 and death anxiety on terminal care performance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30, No.2, pp. 183-193, 2018.
DOI: <https://doi.org/10.7475/kjan.2018.30.2.183>
- [9]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Annual Report of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Korea, pp.26-29.
- [10] H. J. Kim,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advance directiv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2, pp.227-237, 2019.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9.25.2.227>
- [11] M. S. Yoo, K. C. Shon,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Moral sensitivity and Moral Judg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Vol.12, No.2, pp.61-76, 2012.
- [12] Y. R. Chong, Y. H. Lee, "Affecting factors of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3, No.4, pp.389-397, 2017.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7.23.4.389>
- [13] S. Y. Han, "Social worker's knowledge of advance life sustaining care directives and experience of aids end of life care decision making process: Geriatric hospital and long term care facility",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42, pp.287-329, 2016.
- [14] Y. S. Kim, *Study on the comparison of consciousness on ethics between clinical nurses and student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pp.1-2, 2000.
- [15] JY. H. Kwon,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3, No.2, pp.262-272, 2009.
- [16] JH. Y. Jung, K. I. Jung,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freshme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6, No.4, pp.37-48, 2012.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12.6.4.037>
- [17] S. H. Ahn, "Quantitative analysis of ethics research within the Korean nursing community.",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12, No.3, pp.261-274, 2009.
DOI: <https://doi.org/10.35301/ksme.2009.12.3.261>
- [18] K. E. Kwon, M. S. Yoo,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Dignified Death and Advance Directive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Vol.25, No.3, pp.204-214, 2018.
DOI: <https://doi.org/10.22705/jkashcn.2018.25.3.204>
- [19] S. N. Kim, H. J. Kim, "Recognition of Good Death, Attitude toward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Attitude towards Euthanasia in Nurses",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19, No.2, 2016.
DOI: <https://doi.org/10.14475/kjhpc.2016.19.2.136>
- [20] H. J. Park, H. J. Yang, E. K. Byun, "Effect of good death cognition, self esteem,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7, No.3, pp.71-78, 2021.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1.7.3.71>
- [21] E. J. Choi, H. S. Jeong,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good death recognition, and self-esteem on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5, pp.275-284,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5.275>
- [22] C. E. Schwartz, K. Mazor, J. Rogers, Y. Ma, G. Reed, "Validation of a new measure of concept of a good death.",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Vol.6, No.4, pp.575-584, 2003.
DOI: <https://doi.org/10.1089/109662103768253687>
- [23] H. S. Jeong, *Recognition towards good death among physicians and nurses in an area*,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Busan, pp.16-17, 2009.
- [24] Y. S. Lee,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20, No.2, pp.249-270, Aug. 1990.
DOI: <https://doi.org/10.4040/jnas.1990.20.2.249>
- [25] S. J. Kwon,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pp.16-17, 23-25, 2003.
- [26] M. T. Nolan, M. Bruder, "Patients'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s and end-of-life treatment decisions", *Nursing outlook*, Vol.45, No.5, pp.204-208, 1997.
DOI: [https://doi.org/10.1016/S0029-6554\(97\)90066-X](https://doi.org/10.1016/S0029-6554(97)90066-X)
- [27] H. L. Lee, Y. H. Park,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s of older adults using senior center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16, No.2, pp.160-169, 2014.
DOI: <http://dx.doi.org/10.17079/jkgn.2014.16.2.160>
- [28] Y. H. Cho, S. R. Shu, "Awareness of the good death and attitude toward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1, pp.597-607, 2017.
DOI: <https://doi.org/10.35873/aimahs.2017.7.1.054>
- [29] I. H. Kwon, *Comparison on awareness of good death and knowledge and attitude of advance directives of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in universities*, Master's thesis, Koin National University, Busan, pp.22,30, 2018.
- [30] E. Jeong, M. R. Jung, "Effects of Knowledge on Advance Directive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 on Attitudes toward Advance Directiv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0, No.6, pp.337-345, 2019.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9.10.6.337>

- [31] H. S. Kim, K. A. Kim, "Effects of Perception of Death,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Moral Sensitivity on the Attitude toward Advance Directives of Clinical Nurses", *Health & Nursing*, Vol.32, No.2, pp.29-37, Nov. 2020.
DOI: <https://doi.org/10.29402/HN32.2.4>
- [32] H. J. Kim,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Toward Advance Directiv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2, pp.227-237, May. 2019.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2.227>
- [33] E. J. Lee, H. N. Lim, M. H. Lee, D. R. Kim, "The Effect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Good Death Recognition, and Knowledge on Advance Directive on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ICU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7, pp.377-388, 2022.
DOI: <https://doi.org/10.5762/KAIS.2022.23.7.377>

김 두 리(Doo Ri Kim)

[준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관심분야>

간호학

양 채 연(Chae Yeon Yang)

[준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관심분야>

간호학

채 희 원(Hee Won Chae)

[준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관심분야>

간호학

장 지 은(Ji Eun Jang)

[준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관심분야>

간호학

윤 지 수(Ji Su Yoon)

[준회원]



• 2020년 3월 ~ 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관심분야>

간호학

조 은 희(Eunhee Jo)

[정회원]



- 2017년 8월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간호교육